



“금배추야 잘자라거라”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김장 파동’까지 우려되고 있다. 29일 니주시 남평읍 풍림리 풍광마을에서 박소복씨(68)씨가 자신의 김장배추 밭에 물을 주고 있다. 박씨의 배추는 11월 초에 출하된다. ▶관련기사 6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주아탕, 육개장
•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방안

• 객실 :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돌잔치 :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일순연 · 각종 세미나 (대 · 중 · 소연회장 완비)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 ~ 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기초생활수급제 도입 10년 지역민 국민층 전략 늘었다

비중 광주 4·5% 전남 5.4%로 전국 평균 웃돌아

광주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도입 이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층으로 전략하는 지역민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전남도는 인구 유출로 인해 수급자 수는 줄었으나 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국민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각각 6만5195명, 10만8679명으로, 전체 인구의 4.5%와 5.4%에 이르고 있다. 전국의 수급자는 15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2% 수준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00년 4만 9954명으로 3.6%였으나 2005년 4.1%(5만8117명)로 4.0%를 넘어선 뒤 2007년 4.3%(6만573명) 등으로 매년 2000~3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지난 2001년 14만 364명에서 2003년 13만5115명, 2005

년 13만3143명, 2007년 12만957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이는 고령자 사망 및 인구 유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도의 인구가 지난 2001년 210만4052명이었으나 지난해까지 매년 5000~2만명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역 인적 자원의 노동력 상실, 국민층 지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사회복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국비보조 비율이 축소되고 지자체 부담이 증가해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은 지난 2005년 113만6332원(4인 기준)에서 올해 136만3091원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국비 보조는 오히려 줄어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매년 사회복지비 재원 마련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시의 본예산(일반회계) 2조232억원에서 사회복지예산은 5800억원으로 29.0%였으나 올해 본

예산(일반회계) 2조1650억원에서 사회복지예산은 6900억원으로 전체 재정의 32.0%에 달했다. 전남도는 올해 수급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생계비 예산만 2677억원을 배정했다.

차상위계층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자활·장애·의료 등 각 분야 별로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으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의 빈곤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전국적으로 200만가구 4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민주노동당 광석숙 의원은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 대부분 무의미한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국민층이라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빈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예산의 국비 비율을 높이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김지을 기자 chadol@

50년간 호남 인구만 줄었다

비중 23.8%→10.4% 급감

지난 50년간 전국에서 호남권의 인구 감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전국 5대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인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0년 호남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23.8%로, 공업화 이전 전국 5대 권역 중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50년 뒤인 지난 2009년엔 호남권 인구는 10.4%로 급감해 전국 5대 권역 중 인구비중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반면 수도권은 1960년 20.8%였던 인구 비중이 2009년 49.0%로 2.4배 급증했다.

충청권은 1960년 15.6%였던 인구비중이 2009년 10.1%로 감소했고, 대경권 역시 15.4%에서 10.4%로 줄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은 1960년 16.7%에서 2009년 15.9%로 다소 줄긴 했지만, 다른 지방에

비해 인구비중 감소율이 높지 않았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공업화 이전에는 호남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공업화 이후 호남권 인구

■전국 5대권역 인구추이 (단위:천명, %)

구분	1960	1980	2000	2009	면적비중
총계	24,989 (100%)	37,407 (100%)	45,985 (100%)	49,773 (100%)	100%
수도권	5,194 (20.8)	13,281 (35.5)	21,258 (46.2)	24,379 (49.0)	11.8
충청권	3,898 (15.6)	4,378 (11.7)	4,669 (10.2)	5,049 (10.1)	16.6
호남권	5,948 (23.8)	6,065 (16.2)	5,232 (11.4)	5,201 (10.4)	20.7
대경권	3,848 (15.4)	4,952 (13.2)	5,190 (11.3)	5,160 (10.4)	19.9
동남권	4,182 (16.7)	6,477 (17.3)	7,638 (16.6)	7,908 (15.9)	12.3

가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동남권·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알림

경력기자 모집합니다

전통과 신뢰의 광주일보가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호남 대표언론 광주일보는 지식 정보화시대에 첨병이 될 새로운 인재들과 함께 보다 깊이 있는 취재, 참신한 시각으로 지역언론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패기있는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1. 모집대상

모집부문	인원	자격 및 대상
취재기자	○명	•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편집기자	○명	• 중앙 및 지방일간지 경력 1년 이상 10년 이하인 자

2. 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본사 소정양식) 1부
-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다운로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기소개서 1천자 이내 1부
- ▷이력서 1부
-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편집기자는 포트폴리오 3건
- ▷기타 자격증 사본

3. 전형 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일 정
▶입사지원서 배부 및 접수	2010년 9월 30일~10월 7일 18:00시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0년 10월 8일
▶면접	2010년 10월 11일
▶최종합격자 발표	2010년 10월 12일

▷서류 접수처 :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총무부(우편접수 및 직접 방문)

4. 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光州日報社

“수능 어렵지 않게 난이도 조절”

모의평가 다소 어려워

이달 2일 치러진 2011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수리영역, 특히 수리 가형이 어렵게 출제돼 표준점수 최고점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모의평가는 11월 본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본 수능에서도 수리가 어렵게 출제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수 있지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어렵지 않게 난이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수험생

에게 성적표를 교부했다.

채점 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언어영역 133점, 수리 나형 145점, 외국어(영어)영역 142점으로 6월 모의평가(134점, 147점, 142점)와 지난해 수능(134점, 142점, 140점) 때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리 가형은 157점으로 6월 모의평가(146점)보다는 11점, 작년 수능(142점)보다는 15점이나 올랐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인의 점수가 평균을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지고 반대로 평균이 높으면 최고점은 낮아진다. /연합뉴스

취하를 위한 그림같은 골·프·장

친환경 나비고장 합평에 오시면 사계절 푸른 양잔디,
한폭의 수채화 같은 **합평 다이너스티**가
여러분의 삶에 여유로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리겠습니다.



예약문의 080) 320-7700
전남 합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